

연세합동과 의료원 체제 이후의 선교활동(1957-1993)

여인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및 의학사연구소

- I. 서론
- II. 합동과 연세의료원의 탄생
- III. 신촌 캠퍼스 건축과 와이스 박사의 공헌
- IV. 스콧 선교사의 활동
- V. 세계기독교봉사회(Church World Service)의 결핵관리사업
- VI. 세브란스와 재활의학의 발전
- VII. 맺음말

I. 서 론

광복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기간은 민족적으로도 수난과 시련의 기간이었다. 특히 한국전쟁을 거치며 그나마 남아있던 기반들이 철저히 파괴되었다. 세브란스 역시 이 시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전쟁으로 병원과 학교가 거의 파괴되었다. 그러나 파괴는 파괴에만 그치지 않았다. 전후의 복구과정은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만들다. 과거 간헐적으로 논의되던 세브란스와 연희의 합동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실현될 수 있었던 것도 전후의 복구과정이 가져다 준 결과였다.

합동 이후 신촌으로 병원과 대학 캠퍼스가 이전한 것은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이 시기 세브란스의 발전은 미국의 선교단체나 CMB, 또 미군 등 주로 미국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처럼 아직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를 키워가는 단계였기에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가 선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을 위한 활동들이 아니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많은 사업들은 당시 한국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였지만 세브란스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병원으로서 세브란스는 한국 사회에 큰 공헌을 하였고, 그것은 선교의료기관으로서 세브란스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도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세브란스에 머물며 이 기관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헌신했던 선교사들은 세브란스의 초기 역사를 장식했던 선교사들에 비해 그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세브란스와 연희의 합동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후 합동 이후 세브란스의 재건기에 이 기관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던 여러 사업들이 어떻게 기독교 의료기관으로서 세브란스의 정체성을 이 사회에 드러내는 선교 행위가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합동과 연세의료원의 탄생

세브란스와 연희대학교가 합동하여 1957년 1월 5일 연세대학교로 탄생하였다. 양교는 미국 북장로회의 선교사였던 알렌과 언더우드에 의해 세워진 공통점이 있었다. 알렌이 세운 제 중원에서 언더우드가 도와 선교사업을 펼쳤고, 언더우드의 권유로 에비슨이 내한하였다. 에비슨이 어려울 때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 준 사람은 언더우드였고, 또 언더우드가 경신학교 대학부를 설립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 준 사람은 에비슨이었다. 이런 연류로 1915년 설립된 경신학교 대학부의 교장 언더우드는 에비슨을 부교장에 임명하였다. 1916년 언더우드의 사망 이후 에비슨은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에 취임하여 세브란스와 연희의 교장을 18년이나 겸임하면서 양교를 한국인의 학문 요람으로 발전시켰고, 양교 교직원은 수시로 체육대회를 여는 등 교류가 많았다. 또 에비슨이 은퇴하자 오 알 에비슨 컵을 만들어 양교가 7 종목에 걸쳐 체육 경기를 갖기도 했다.

양교의 합동은 1929년에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해방 직후 다시 한번 거론되었지만, 전쟁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세브란스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미8군 사령관 테일러를 비롯하여 8군의 수뇌들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국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 흥과병원을 지어주겠다는 낭보가 날아들었다. 그런데 그 장소는 당시 합

동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신촌의 연희캠퍼스 안이었다. 여전히 교명 문제와 세브란스 동창들을 중심으로 합동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1954년 10월의 양교 이사 연석회의는 무조건 합동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 건축될 세브란스 부속병원을 신촌 캠퍼스 내에 짓기로 1954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1955년 4월 23일 종합 의료원을 목표로 신촌에서 역사적인 병원의 기공식이 거행되었고, 1958년 6월 미 8군 흉곽병원이 처음으로 준공되었다. 1957년 5월 25일에는 의료원 신축지 후면에 소아마비 재활원을 착공하여 1959년 10월 1일 준공, 개원하였다. 1959년 4월 1일에는 의과대학의 착공식이 있었고 1962년 6월 5일에 의과대학과 병원의 봉헌식이 거행되어 정든 역전 구 캠퍼스를 떠나 신촌으로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둑지를 틀게 되었다.

흉곽병원을 설치한 것은 합동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지만 한국의료사에 있어서도 당시 만연하던 심각한 질환인 결핵 치료를 위해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원의 설립과 함께 우리나라 흉부외과의 권위자인 홍필훈이 부임하여 세브란스는 한국 흉부외과분야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사실 세브란스에 심장혈관전문병원이 별도로 세워진 것은 1991년이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이런 시도가 있었고, 또 규모는 작지만 심장병 센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1963년 7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심장병 센터가 만들어졌다. 이는 격증하는 심장질환을 적절히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여기서는 주로 선천성 심장질환과 심장판막증을 취급하였으며 이 센터를 보다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내과, 소아과, 외과의 심장전문의들로 팀을 구성하였다. 현재 세브란스 심장혈관센터가 얹고 있는 명성도 이러한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합동 무렵 세브란스에서 교수로 일하던 선교사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분들이 있었다. 먼저 캐나다 노바 스코티아 출신의 이안 롭(Ian Robb) 선교사는 마취과 의사로 마취과 과장을 맡고 있었고, 캐나다 연합교회의 파송을 받았다. 어니스트 와이스(Ernest Weiss) 선교사는 외과의사로 미국 감리교선교회가 파송했으며, 신촌의 의료원 캠퍼스 건축에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 다음으로 여성으로 외과의사였던 로베르타 라이스(Roberta Rice) 선교사는 메이요 클리닉에서 수련받은 실력 있는 외과의사로 역시 미국 감리교선교회의 파송을 받았다. 그리고 미국 연합장로교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는 산부인과 의사였던 커틀랜드 로빈슨(Courtland Robinson)과 외과의사 케네스 스콧(Kenneth Scott)이 있었다.¹⁾ 이들은 각자 선교사로서 자신들의 소명에 충실했다. 다만 여기서는 시간과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이들 선

교사들의 업적과 활동을 모두 살펴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신촌의 의료원 캠퍼스 조성에 절대적인 공헌을 한 와이스 선교사와 이 기관이 기독교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스콧 선교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신촌 캠퍼스 건축과 와이스 박사의 공헌

병원과 대학 캠퍼스가 신촌으로 이전한 것은 세브란스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지만, 이 과정이 저절로 손쉽게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신촌에 새로운 병원과 대학을 짓는 데에는 20년 간 세브란스의 외과교수로 활동했던 와이스 박사의 헌신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와이스 박사는 1908년 10월 25일 텍사스의 가난한 농가에서 일곱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농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다가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고등학교에 복학했다. 이후 신시네티 의대를 졸업하고 1937년에 의사가 되었다. 인디애나폴리스 감리교 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신시네티 베네스타 병원에서 외과 수련을 받았다. 이후 1939년에서 1943년까지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했다. 그 후 다시 귀국하여 1946년까지 외과 수련을 더 받고 1946년부터 1951년까지 중국의 난창 종합병원에서 일했다. 중국의 공산화로 임지를 한국으로 옮긴 와이스 박사는 1955년에서 1975년까지 우리 대학의 외과교수로 봉직하며 우리 기관의 외과발전과 후학 양성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와이스 박사의 공헌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신촌에 병원과 대학을 건축한 일이다.

1955년에 세브란스에 외과교수로 부임한 와이스 교수는 재한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치료를 담당하면서 곧 건축위원장의 중책을 맡았다. 당시는 세브란스와 연희의 합동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합동을 조건으로 미 8군에서 신촌 캠퍼스에 흥과병원을 지어줄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합동 이후 서울역 앞의 캠퍼스를 신촌으로 이전하기 위해 신촌에 의과대학과 병원을 세우는 대대적인 건축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렇지만 자체적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모든 건축 사업은 외부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와이스 교수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건축위원회를 맡아 미8군, 선교본부, 차이나 메디컬

1) Kenneth M. Scott, *Around the World in Eighty Years* (Franklin: Providence House Publishers, 1998), 128.

보드, 기타 국외의 여러 선교 단체와 끊임없이 접촉하고 교섭하여 신촌 캠퍼스의 이전과 그에 따른 대학과 병원 건물의 건축이 이루어지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병리검사실에 근무하던 부인 헬다 여사는 병원 건축과 관련된 수많은 방문객을 맞아 그 집은 손님이 그칠 날이 없었으며, 또 와이스 교수 부부가 건축을 위해 여러 기관과 개인들에게 보낸 타자 편지가 1,500통에 이를 정도로 와이스 교수 부부는 신촌 캠퍼스 건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와이스 교수는 건축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며 노력했고, 또 건물 완성 이후 필요한 장비와 설비들을 확보하는 데도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신촌 캠퍼스 이전이라는 거대한 사업은 와이스 교수의 이와 같은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와이스 박사와 그 부부의 활동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와이스 박사는 학생들에게 외과를 가르치는 한편 외과의사로서 많은 수술을 했다. 그 가운데서도 언청이 수술을 많이 했고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한 복원수술도 했다.²⁾

와이스 부부는 선교사역을 지원하는 친척과 친구 등 후원자들 약 1,500명에게 자신들의 활동 내용을 담은 소식지를 발송했다. 일 년에 네 번 소식지를 만들고 이를 1,500명이나 되는 후원자들에게 발송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병원 건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랐다. 먼저 환율의 문제가 있었다. 건축공사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동일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환율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달라졌다. 당시 국내는 정치와 경제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로 불안정하였고, 또 정치적인 이유로 환율이 인위적으로 고정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러한 환율 정책에 따라 미국돈 1달러가 이전보다 절반의 가치로 평가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세브란스 병원의 신축공사는 약 3년 동안 거의 중단되기도 했다.³⁾

그밖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았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각 공정이 진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이 모두 동시에, 혹은 순서대로 갖추어지지는 않았다. 병원 건축을 위한 자재들이 미국에서 운송되었을 때 예를 들어 5번째 작업에 필요한 자재가 먼저 도착하여 1번 자재가 올 때까지 조립식 막사에 보관한다. 그러나 1번 자재가 도

2) 헬다 세이터 와이스 지음, 엘리자베스 베티 리처드슨 역음, 안종희 번역, 『의료선교사 와이스 부부의 헌신』(서울: 청년의사, 2010), 245.

3) 헬다 세이터 와이스 지음, 엘리자베스 베티 리처드슨 역음, 안종희 번역, 『의료선교사 와이스 부부의 헌신』, 258.

착하면 조립식막사나 5번 설비에 속한 물품이 도난당하고 없는 경우가 흔히 발생했다.⁴⁾ 또 현장을 감독하는 일도 쉽지 않았고, 건축기술자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도 그랬다. 건축기술 자로는 클라크 씨와 해스팅 씨, 그리고 스트라우스 씨 등이 병원 건축에 참여했다. 그런데 스트라우스 씨가 떠나고 1962년에 후임으로 월리 씨가 왔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새롭게 온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와이스 박사는 그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 해 동안의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1962년 6월 5일 마침내 병원 준공식이 열렸다. 합동 이전인 1955년 4월 23일에 기공을 한 이래 약 7년이 넘는 공사기간을 거쳐 마침내 준공식이 열렸다. 준공식에는 미8군 사령관인 멜로이 장군, 미국대사, 미8군 군악대, 한국 총리 등 내외 귀빈 5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준공식에서는 멜로이 장군, 차이나 메디컬 보드의 라욱스 박사 등이 축사와 인사말을 하였고⁵⁾ 와이스 박사는 7년에 걸친 건축경과를 보고했다. 신축 봉헌한 건물은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미8군기념 흥국병원이었다. 병원 및 부속건물은 대지 4,106평에 자리 잡았고, 수용환자는 500명, 총 공사비는 1,328,647달러가 소요되었다. 이와 함께 외래 진찰소도 완공되었는데 이는 대지 1,769평에 자리 잡았고 총 공사비는 355,103 달러가 소요되었다.⁶⁾

병원이 준공되기 전 해에는 의과대학과 간호학과 기숙사 봉헌식이 1961년 9월 20일에 열렸다. 이는 1959년 7월 15일에 기공식을 가진 이래 2년 만에 완공된 것이다. 의과대학 건물의 신축은 차이나 메디컬 보드와 캐나다 여선교회, 그리고 미8군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의과대학 건물은 차이나 메디컬 보드의 도움으로 건축되었고, 간호과 기숙사는 캐나다 여선교회의 도움으로 건축되었다. 당시 봉헌된 의과대학은 3층 건물로 대지 2,178평에 자리 잡았고, 공사비는 855,000달러가 소요되었다. 간호과 기숙사 역시 3층 건물로 15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공사비로 215,000달러가 소요되었다.⁷⁾ 이 역시 와이스 박사가 건축의 총책임을 맡아 수고한 건물이었다.

와이스 부부는 한국에 오기 전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되어 어

4) 할다 세이터 와이스 지음, 엘리자베스 베티 리처드슨 역음, 안종희 번역, 『의료선교사 와이스 부부의 헌신』, 263.

5) 할다 세이터 와이스 지음, 엘리자베스 베티 리처드슨 역음, 안종희 번역, 『의료선교사 와이스 부부의 헌신』, 316.

6) 『연세춘추』, 「연세 메디칼 센터 봉헌식」, 1962년 6월 4일.

7) 『연세춘추』, 「20일 의과대학 봉헌」, 1961년 9월 25일.

쩔 수 없이 중국을 떠난 후에도 중국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중국인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중국인 사회와도 가깝게 지냈다. 그는 이들과 중국인 교회를 돋기 위해 여러 활동도 했다. 후에는 중국인 교회에서 시무할 목사를 구하기 위해 대만과 홍콩에서 적임자를 찾는 노력도 했다. 당시 한국의 중국인 교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것은 중국인 교회가 한국 교회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것은 미국의 지원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 전국교회협의회는 한국에 있는 중국인 교회가 다른 교회와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 중국인 교회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중국인 교회가 미국 전국교회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로부터 지원받는 돈을 중국인 교회에 나누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⁸⁾ 이때 감리교 선교사가 한국교회와 중국인 교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

와이스 박사는 건축위원회장을 맡아 신촌의 캠퍼스 조성에 매진하느라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고, 공사 기간 동안과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1975년 사역을 마치고 귀국을 할 때에는 들것에 누워서 비행기를 타야했다.

IV. 스콧 선교사의 활동

케네스 스콧 선교사는 1916년 중국 칭타오에서 선교사 부부의 자녀로 태어났다. 중국 칭타오와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펜실베니아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었다. 졸업 후에는 필라델피아의 장로교 병원에서 인턴을 했다. 1942년 인턴을 마치고 미군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이차세계대전 중에 중국과 버마 등지에서 근무했다. 전쟁 중에 외과에 흥미를 느끼고 펜실베니아 의대 부속병원에서 외과 레지던트 수련을 받았다. 수련 후에는 한국으로 왔다. 한국 전쟁이 막 끝난 1953년 9월부터 대구의 동산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⁹⁾ 첫 5년의 임기를 대구에서 마치고, 두 번째 임기는 서울에서 보내도록 배정되었고, 근무지는 세브란스 병원이었다.

8) 헬다 세이터 와이스 지음, 엘리자베스 베티 리처드슨 역음, 안종희 번역, 『의료선교사 와이스 부부의 현신』(서울: 청년의사, 2010), 312.

9) Kenneth M. Scott, *Around the World in Eighty Years*, 98.

당시 세브란스의 외과는 민광식 교수가 주임교수로 있었으며,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었다. 한 파트는 주임교수인 민광식 교수의 파트였고, 다른 파트는 홍필훈 교수의 파트였다. 스콧 선교사는 홍필훈 교수의 파트였는데, 당시 직위상 홍교수는 조교수였고, 스콧 선교사는 정교수였다. 그리고 나이도 스콧 선교사가 5살 더 많았다. 그러나 스콧 선교사는 이러한 외적인 면들에 구애받지 않고 홍필훈 교수가 자신보다 뛰어난 외과의사이고 행정가, 교육자임을 이유로 들어 파트의 책임자 자리를 홍필훈 교수에게 양보했다. 인품의 겸손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브란스에 온 이후 그도 와이스 교수와 함께 흉곽병원 건축을 위한 위원회의 일원으로 병원 건축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었다.

외과의사로서 스콧 선교사는 여러 종류의 수술을 했다. 홍필훈 교수와 함께 심장과 폐 수술을 하기도 했으나, 본인은 주로 언청이 수술이나 화상 후유증으로 수축된 피부를 재건하는 성형외과 수술을 많이 하게 되었다. 이러한 치료의 과정에서 환자들의 삶을 바꾸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만 언급하겠다. 시골 출신의 양남희라는 부인이 있었다. 남편은 경찰관으로 성격이 급하고 과격했다. 이 부인 또한 고분고분한 성격은 아니어서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남편이 다른 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의 부인을 독살하려 하였다. 이 독살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어느 날 남편은 부인을 외진 산으로 데려가서 그녀를 절벽에서 밀어서 추락사를 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가 부인이 달아나자 경찰관인 남편은 부인을 쫓아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그녀를 쏘았다. 총에 맞은 부인이 땅에 쓰러져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자 남편은 준비해간 휘발유를 부인의 얼굴에 뿌리고 불을 붙인 후 달아났다.

이런 혐한 일을 당하고도 부인은 목숨을 건졌고, 남편은 투옥되었다. 대신 부인은 얼굴과 목, 그리고 손에 심한 화상을 입고 수축이 일어나 입과 얼굴이 가슴에 유착되었다. 그녀를 보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흉한 외모가 된 것이다. 몇 달 후 그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 스콧 선교사는 여러 차례의 수술을 통해 그녀의 흉하게 변한 외모를 개선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변화를 겪은 것은 그녀의 외모만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녀는 자신을 그 지경에 빠지게 만든 남편에 대해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더 이상 품지 않게 되었다. 나중에는 투옥된 남편을 찾아가 이제 당신을 용서한다는 말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¹⁰⁾ 후에 스콧 선교사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10) Kenneth M. Scott, *Around the World in Eighty Years*, 137.

되자 그 소식을 들은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다.

스콧 선교사는 이처럼 외과의사로서 활동하는 한편, 결핵관리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사업은 어네스트 스트러더스(Ernest Struthers) 박사가 시작한 통원결핵관리 프로그램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욱 자세하게 언급하겠다.

V. 세계기독교봉사회(Church World Service)의 결핵관리사업

한국전쟁 후 결핵은 대략 전체 인구의 2퍼센트 정도가 감염되어 있을 정도로 만연되어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질병이었다. 과거 결핵환자의 치료는 결핵요양원에 입원하여 받아야 한다는 개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요양원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아서 요양원에 가면 죽어서 나온다는 관념이 널리 퍼져있었다. 그로 인해 결핵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이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다행히 효과적인 결핵치료제들이 잇달아 개발되면서 더 이상 요양치료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고 환자들이 병원에 통원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한국전쟁 후에는 결핵치료약을 약국에서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약이 고가인데다가 약국에서 복약방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지 못해 약을 복용하던 환자들이 증상이 호전되면 복약을 중단하여 약재에 내성을 가진 결핵이 증가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결핵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한 사람이 캐나다의 의료선교사 스트러더스(Ernest B. Struthers)였다. 스트러더스는 1886년 캐나다에서 출생하였으며 1920년 대부터 중국에 의료선교사로 파송되어 산동성 칠루 의대에서 20년간 근무하였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일단 캐나다로 귀국했다가 1953년 캐나다연합장로교 의료선교사로 내한하였다. 그는 세브란스에 기독교세계봉사회 흉부진료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결핵사업에 매진하였다. 세계기독교봉사회는 세계각국의 기독교신자들이 모여 만든 봉사단체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보건사업, 사회사업, 교육사업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결핵사업에 치중하였고, 이 사업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스트러더스 선교사였다.

1954년에서 1958년까지 세브란스의과대학 내과교수로도 봉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던 그는 1954년 1월에 서울역전 세브란스병원 구내에 처음으로 시범적인 흉부진료소를 설치했다. 이어서 그해 8월에는 서울적십자병원, 11월에는 서울여자의과대학병원, 그리고 1955년 5월

에는 서울시립병원에 흥부진료소를 설립했다. 서울에 이어 대전, 대구, 인천, 용인, 공주, 광주, 삼교에 기독교세계봉사회 흥부진료소가 설치되어 통원치료사업이 이루어졌다.¹¹⁾

특히 세브란스병원에 세워진 흥부진료소는 한국 내에 설치된 기독교세계봉사회 흥부진료소들의 총 본부였다. 이곳을 중심으로 많은 결핵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1960년에는 근무하는 의사 9명, 간호사 12명, 엑스선 기사 3명, 검사기사 2명, 사회사업가 3명 등 모두 34명의 직원이 일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며, 창설 이래 1960년 9월까지 약 11,00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¹²⁾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환자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이 방문진료를 했으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환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환자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주어졌지만 적은 액수나마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받았다. 그것은 공짜약은 약의 효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환자들의 치료효과를 위해서도, 그리고 환자의 자존감을 위해서도 상징적인 액수의 진료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화학요법과 더불어 외과적인 수술이 가능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폐절제 수술도 시행했다. 수술은 주로 스콧 선교사가 담당했다. 수술을 위해서는 충분한 입원실의 확보가 필요했으나 이것이 여의치 않았다. 다행히 입원실의 부족 문제는 미8군 기념 흥과병원의 건립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앞서 말한 연세합동의 조건이 된 미8군 기념 흥과병원은 기본적으로 폐결핵환자의 치료를 위해 건립된 병원이었던 것이다.

식량이 부족할 정도의 극빈자들에게는 식량도 제공해주었다. 또 좁은 집에 결핵환자가 있을 경우 나머지 가족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도 손쉽게 감염될 우려가 있어서 환자가 따로 분리되어 있을 수 있는 가설구조물도 제공해주었다.¹³⁾

단순히 약물에 의한 치료만이 아니라 이처럼 환자의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섬세한 프로그램 덕분에 결핵환자 관리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가 널리 알려져서 1958년 스트러더스가 세브란스를 떠난 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한 스콧 선교사는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결핵관리 프로그램의 자문관으로 초빙되었다. 정부의 관리 프로그램은 세브란스가 중심이 된 세계기독교봉사회의 결핵관리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였다. 이처럼 세계기독교봉사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세브란스의 결핵관리사업은 우리나라 결핵관리 사업을 선도하였던 것이다.

11) 대한결핵협회, 『한국결핵사』(서울: 한국결핵협회, 1998), 388.

12) 대한결핵협회, 『한국결핵사』, 389.

13) Kenneth M. Scott, *Around the World in Eighty Years*, 134.

그 자신 이 사업에 많은 공헌을 했던 스콧 선교사는 이 사업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효율적이고도 경제적인 것으로 판명된 이 통원 프로그램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현명하고 과목 한 캐나다 의사 닉터 어니스트 스트러더스의 지도력과 비전 덕분이었다. 그러나 더욱 큰 의미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役事)였다. 때가 무르익었고 한국인들이 이를 수용할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¹⁴⁾

VI. 세브란스와 재활의학의 발전

재활원의 개원 또한 큰 의미를 지닌다. 재활의학의 발전 정도는 단순히 어떤 한 분야의 학문발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가 장애자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고 배려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재활의학의 발전은 한 사회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에서 장애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국력에 걸맞지 않게 지극히 미미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브란스의 재활의학은 국립기관에서도 운영하지 않는 별도의 재활병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독교적 사랑과 박애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활의학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한국전쟁 직후였다. 전쟁 이후 소아마비 환자들이 급증해 이들에 대한 치료가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기독교봉사회의 재정지원으로 1954년 11월 19일에 세브란스 병원에 처음으로 소아마비 진료소가 개설되었으며, 그 중요성이 널리 인정을 받아 1958년에 새로 옮기는 신촌 캠퍼스 안에 소아재활원(Crippled Children's Center)을 신축하여 1959년 10월 1일 문을 열게 되었다. 소아재활원의 책임은 스콧 선교사의 부인인 앤(Ann Scott)이 맡았다. 소아재활원의 설립 이전에는 소아마비로 지체가 불편해진 아이들을 위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없었다. 소아재활원에는 4-12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약 40명이 있었다. 대부분은 소아마비 환자들이었으나 화상 후유증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어린이들도 일부 입원해 있었다.

14) Kenneth M. Scott, *Around the World in Eighty Years*, 135.

소아재활원에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있었다. ‘세브란스 소아재활원 부속초등학교’로 문교부의 인가를 받은 이 학교는 한국 유일의 재활원 학교였다.¹⁵⁾ 155평의 건물 안에 입원숙소, 물리치료실 및 운동실, 학교 교실, 특수 예능교실, 식당, 놀이터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 소아재활원에 입원한 아이들 가운데 학령미달의 어린이를 제외한 아이들은 모두 이 학교에 다녔으며, 1964년의 경우는 모두 17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다. 이들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모두 두 분이었지만,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자원봉사의 형태로 이들을 돌보았다. 예를 들어 당시 연세대 음대의 조교수로 있던 광상수 교수는 매주 두 시간씩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었다.

이 학교는 소아재활원의 독자 예산과 외부의 보조금, 그리고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로 운영되었다. 앤은 아이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간호사, 교사, 요리사와 다른 유지 인력들을 직접 고용했다. 비록 여러 종류의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는 했으나 활기찬 어린이들로 가득한 소아재활원은 금방 유명해졌다. 그래서 서울을 방문하는 국제적인 명사들이 흔히 찾는 명소가 되었다. 그리고 소아재활원을 이렇게 발전시킨 앤은 1962년 5월 5일, 제 40회 어린이날을 맞아 올해의 어머니 세 명 중의 하나로 선정되어 상을 받았다. 외국인 여성의 선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¹⁶⁾

소아마비 환자의 진료와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것은 한국전쟁 중에 팔다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재활문제였다. 이를 수족 절단자들의 재활을 위해 주한 미군 장병들이 모금을 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또 기독교 세계봉사회의 주관으로 수족절단자를 위한 재활사업을 1953년부터 시작한 결과 1963년 10월 31일에 절단자 재활센터를 신축하게 되었다. 또한 장애자들의 재활치료에 많이 이용되는 각종 보조기의 제작과 공급을 위해 1953년에는 세브란스 병원에 보조기부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는 최초로 설치된 것이었다.

재활의학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리치료시설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952년 7월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이자 물리치료사인 델마 모에 의해 세브란스 병원에 설치되었다. 이후 근전도검사실이 처음으로 개설되어 임상적 진단과 연구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재활의학을 전공하는 인력들이 속속 보강되어 1972년 3월 30일 대한재활의학회가 창립하는 데에도 중

15) 『연세춘추』, 「탐방: 재정난이 큰일, 재활원 초등학교」, 1964년 5월 25일.

16) Kenneth M. Scott, *Around the World in Eighty Years*, 145.

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을 살려 1987년 5월 8일에는 우리나라 대학 병원에서는 처음으로 독립적인 재활병원을 설립하여 장애인들과 질병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VII. 맺음말

이 글을 준비하며 가장 고민이 되었던 문제는 이 시기 세브란스에서 이루어진 선교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런 고민의 가운데 1910년대에 한국의 선교사 사회에서 제기되었던 논쟁이 떠올랐다. 그것은 일제의 도립병원들이 각지에 속속 들어서는 상황에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선교회가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가를 두고 벌어진 논쟁이었다. 대체로 직접적 선교를 중시하는 복음선교사들은 기독교에 노출되지 않은 새로운 사회에서 처음 문을 여는 데는 의료사역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사역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복음선교사들은 의료에 도구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다. 그에 비해 선교의 사들은 의료 자체가 성서적 관점에서도 의미를 가지는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에비슨은 치유가 기독교적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기독교의 본질적 활동이라고 말하면서 의료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¹⁷⁾

그런데 만약 에비슨과 같이 의료사역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시기 기독교의료기관인 세브란스에서 이루어진 모든 활동은 곧 선교활동이 되며, 따라서 이 발표는 이 시기 의료원의 통사를 쓰는 일이 된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선교활동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연세합동의 과정과 이 시기를 전후로 활동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활동, 그리고 기독교단체들이 주로 지원한 몇 가지 사업들에 국한하여 서술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 자체가 기독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그러한 사업은 종교적 색채가 없는 세속 국가가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기 한국의 정부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았다. 반면 세브란스와 같은 기독교병원은 국제적

17) O. R. Avison, "Survey of Medical Work in Korea",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 (1917), 393, 402.

인 기독교단체와 같은 외부의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세브란스는 또 선의로 이 땅에 온 여러 의료선교사들이 모여 활동하는 중심적인 기관이기도 했다. 그러한 유리한 조건들로 인해 각종 의료사업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세브란스에서 이루어진 많은 의료사업이 곧 선교사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과거 세브란스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던 의료사업들은 국가가 떠맡았고, 세브란스 이외에도 좋은 시설을 갖춘 세속 병원들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1910년대 일제의 도립병원들이 들어서며 선교병원의 존립과 역할을 고민하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오늘날 세브란스가 실행하는 의료행위가 어떻게 기독교적 가치를 담지하고 그것을 이 사회에 퍼뜨리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그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어: 세브란스 의과대학, 연희대학, 연세대학교, 와이스 박사, 스콧 박사, 스트리더스 박사

논문 투고일: 2015.04.27. 심사 완료일: 2015.05.17. 계재 확정일: 2015.05.22.

참고문헌

1. 자료

『연세춘추』

O. R. Avison, "Survey of Medical Work in Korea",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 (1917).

2. 연구논저

대한결핵협회, 『한국결핵사』(서울: 한국결핵협회, 1998).

힐다 세이터 와이스 지음/엘리자베스 베티 리처드슨 역음, 『의료선교사 와이스 부부의 현신』,
안종희 번역 (서울: 청년의사, 2010).

Kenneth M. Scott, *Around the World in Eighty Years* (Franklin: Providence House Publishers, 1998).

Abstract

Missionary Activities after the Birth of Yonsei University (1957-1993)

Yeo In-sok

Dept. of Medical History and Institute for History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 1957, Severance Medical College and Yonhee College merged to become Yonsei University. Severance Medical College, which suffered severe damage during the Korean War, was striving to reconstruct its destroyed hospital and college buildings. In the end, the destruction provided an opportunity to make a new start. The merging of the two colleges, which had been discuss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became a reality through the process of reconstruction. U.S. Eighth Army Forces donated a hospital in Sinchon in memory of the American soldiers that had fallen during the war; this contribution accelerated the merging process. The CMB donated a medical college building on the Sinchon campus. With the additional help of United Board and benevolent individuals, a huge medical center was realized. Dr. Ernest Weiss was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of the medical center building on the Sinchon campus. Other medical missionaries also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Yonsei Medical Center: Dr. Ernest B. Struthers launched Korea's first ambulatory program for tuberculosis control. Dr. Kenneth Scott served as a surgeon for patients with old burn-scar contractions. His wife, Ann, took charge of the new Crippled Children's Center, which was supported by Church World Service. These missionary doctors are not as well known as the earlier missionary doctors. However, their dedication and contributions to the Korean people

should be remembered.

Key Words: Severance Medical College, Yonhee College, Yonsei University, Dr. Weiss, Dr. Scott, Dr. Struthers